

읽으면되는법조윤리

초판 1쇄 정오표

(2026년 04월 24일 기준)

※ 본 정오표는 2026년 03월 09일 발행된 “읽으면되는법조윤리(초판)”
1쇄에 대한 내용입니다.

읽으면되는법조윤리 초판(2026년) 1쇄 - 정오표

내용 추가 및 오류 수정 (2026년 04월 24일 기준)

2026년 03월 09일 발행된 읽으면되는법조윤리(초판) 1쇄의 추가(보완) 내용 및 오타자 등을 정리한 정오표를 게재합니다. 수정 및 추가된 부분은 위치란에 표기해 두었습니다.

추가적으로 정오내용이 발견되는 대로 본 정오표가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.

페이지	위치	수정사항
p. 61	첫 번째줄	<p>[본문 - 수정]</p> <p>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(다만 최근에는 이를 인정한 것으로 평가됨; 63쪽 참조)</p>
p.63	④, ⑤	<p>[본문 - 수정, 추가]</p> <p>④ 그러나 원심이 '변호인-의뢰인 비닉특권'을 인정한 것과 달리, 대법원은 그러한 권리가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(2009도6788).</p> <p>⑤ 그런데 2026. 1. 29. 위 특권을 도입하는 취지로 변호사-의뢰인 간 '비밀유지권'을 명문으로 신설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, 그 이후 대법원은 26. 2. 20.자 결정(2024모730) 및 26. 2. 26.자 판결(2025도4422)로써 변호인-의뢰인 간 의사교환을 내용으로 하는 자료 등에 대한 압수는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. 이는 대법원이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서 위 특권이 도출된다고 인정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.</p>